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과 정동정치 - 전라남도 H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정종민* · 명동호**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확산되면서 지역민들이 어떻게 의료사회적 재난을 이해하고, 감내하고, 대응하는지를 정동적 사건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정동이론과 정동적-담론적 실천 개념을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민이 국가, 미디어 혹은 자본에 쉽게 포섭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과의 일상의 마주침 과정에서 어떻게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고 규정할 수도 없는 정동을 발현하는지를 돌아본다. 특히 전라남도 H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신종 감염병 전파자로 지목된 집단/사람에 대한 증오와 사회적 분위기가 얹히고설킨 기억, 감정, 소문을 횡단하며 공통의 문제로 사회화하는지를 기술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민들이 공유자원으로서의 도덕적 공동체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정동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사회 주체로 드러나는 과정을 밝힌다. 나아가 불확실하고, 상황적인 지역의 일상의 정동정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기존의 구조·체제·이데올로기 중심의 지역 정치 연구에 생성적인 열린 체계로서의 새로운 정동정치 연구를 제안한다.

주요어: 코로나19, 정동정치, 정동적-담론적 실천, 소문, 기억, 감정

* 제1저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원(jongminjeong@gmail.com)

** 공동저자,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kimchiroad@naver.com)

| 차례 |

1. 서문
2. 정동을 통해 본 재난연구
3. 정동적 사건으로서 지역사회 감염
4. 소문, 기억, 감정의 재구성과 정동정치
5. 체화된 기억과 누적된 감정의 잉여
6. 결론

1. 서문

2021년 2월 14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조용했던 H지역 대정마을이 들쭉이기 시작했다. 2월 8일 부모님을 뵈러 대정마을에 온 자식을 통해 코로나 19 “최초” 감염자가 발생하여 H지역에 총 9명의 확진자가 생겼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방송됐다. 마을은 비상이 걸렸고,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주위 여론을 살폈다. 마을 경로당은 출입구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폐쇄되었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확성기에서는 읍사무소에서 보내는 코로나 19 예방지침이 매일 수시로 방송되었다. 읍내의 거의 모든 식당과 가게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문을 닫았다. 동시에 9명의 감염에는 마을에 있는 A교회가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TV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졌고, 그 교회로 비난이 집중됐다. 급기야 마을 입구에는 노인회,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빨간색 페인트로 강렬하고 큼지막하게 쓴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청정 섬마을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반성하고 당장 떠나거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군서읍민을 불안케 한 주범은 당장 떠나라!>, <청정 군서읍, 죽음의 도가니로 만든 주범은 반성하고 군서읍을 떠나라!> “선정적인 현수막”이라

며 몇몇 마을 주민들이 설왕설래했지만, 2월 내내 그 현수막들은 마을의 곳곳을 장식했다.

2019년 말부터 조용히 한국에 전파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2년 2월 28일 현재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하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에 따라 1일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기고 있다. H지역 역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더니 2월 말 현재 누적 확진자가 400여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는 이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상이 되었다. 2021년 말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계획은 ‘잠시 멈춤’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새해부터 실시된 거리두기는 2달째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2022년 설 명절, H지역에서는 군과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코로나19 확산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설 연휴 잠시 멈춤!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주세요.> 등과 같은 현수막이 마을 입구에 걸렸다. 2021년 설날 무렵 H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19와 올해 오미크론의 확산 경로와 강도가 달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확진자로 추정되는 혹은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설을 맞이한 H지역은 오히려 여느 때보다 더 조용하다. 확진자 숫자만 놓고 보면 지역민들이 느끼는 위험성과 사태의 심각성은 올해가 훨씬 커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지역민들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까?

감염병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생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 지역, 세대, 종교, 직업 등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과정과 인간-동물-환경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즉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개인이 위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또 불평등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차이를 넘어 차별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역사적·환경적 맥락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¹⁾. 이런 의미에서 “섬 주민의 의식제도”가 필요

하다는 지방 행정공무원과 외부자의 시선은 당시 지역민의 의사결정과정과 들끓었던 분노의 분위기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재난 이후 지역 재난공동체의 회복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및 공공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는²⁾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 거버넌스 및 재난 시티즌십이 필요하다³⁾. 더구나 H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다리의 개통으로 육지가 된 ‘섬’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바다, 꽃, 갯벌, 섬 등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에 대한 임시 폐쇄 조치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폐쇄된’ 지역성에 근거한 의식계도는 사실과도 다른 사회적 낙인일 뿐이다.

TV나 신문에 예방과 치료 혹은 정책적인 선언은 차고 넘치지만,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일상에 대한 지역연구는 희소하다. 일상에서 지역민이 마주하는 코로나19와 정동적 실천에 관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즉, H지역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경험과 이해를 지닌 지역민들이 소문, 기억, 감정을 공적인 관심사로 만들며, 소통하며, 갈등하고, 재생산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지역 정치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실증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포착하려면 미끄러져 사라져 버리면서 끊임없이 지역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동하는 그 역동적 힘인 정동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스피노자(Spinoza), 베르그송

-
- 1) 정종민·송지영, 「팬데믹 상황에서의 관계적 돌봄: 파킨슨증 아버지의 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1. p. 192.
 - 2) 채종현·최호진·이재호, 「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8, 최준규,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21.
 - 3) 노진철, 「공동체 중심 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재난 시티즌십」, 김진희 외 편저, 『포항 지진 그 후: 재난 거버넌스와 재난 시티즌십』, 나남, 2020, 이영희,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경제와 사회』 104, 비판사회학회, 2014.

(Bergson), 들뢰즈(Deleuze), 가타리(Guattari), 마수미(Massumi)로 이어지는 정동의 철학적 전통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웨더렐(Wetherell)의 정동적-담론적 실천(affective-discursive practice) 개념을 인류학적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2021년 대정마을에서 관찰된 현수막 사건을 하나의 “정동적 사건”(an affective event)⁴⁾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언어에 포착되고 개념화된 기억, 감정, 소문을 넘어 신체를 통해 경험되는 비재현적 정동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열린 정치적 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이는 정동을 추적하고 앞으로의 정동의 정향을 내다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정치적 표현을 추동하고 수행하는지를 소문, 기억, 감정의 잉여, 즉 정동을 통해 재조명한다. 나아가 거시적인 제도나 정책 중심의 지역의 재난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적 정동정치의 차원을 바이러스와 지역, 그리고 지역민의 삶 사이의 정동적 장(affective field)이 구성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인식론적 대안을 제안한다.

기억할 것은 본 연구가 현수막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를 밝히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적 혹은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현수막 글씨를 썼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글씨가 전달하는 사회적 의미의 강도와 지속이 끊임없이 조율되는 정동정치의 역동적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 8월 필자가 거주하는 이웃 마을인 우정마을 C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사건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수막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2022년 1월까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참여관찰을 포함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4) Massumi, Brian, *Politics of Affect*, Cambridge: Polity, 2015, p. 92.

〈표 1〉

구분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이숙현	여	60대	자영업	군서읍	40년 정도
신수현	여	50대	공무원	청남시	20년 정도
정미연	여	60대	자영업	군서읍	40년 정도
서고운	여	50대	자영업	군서읍	15년 전후
박광식	남	50대	교인	군서읍	5년 정도
지수미	여	50대	자영업	군서읍	10년 이상
신정남	남	70대	자영업	군서읍	30년 이상
반남서	남	50대	자영업	군서읍	50년 정도
이청내	남	60대	자영업	군서읍	20년 정도
오경춘	남	70대	농업	군서읍	50년 이상
나하민	남	60대	무직	군서읍	10년 이상
김현희	여	60대	자영업	군서읍	40년 정도

특히 지역의 상인, 농업경영인, 낚싯배 운영자, 식당 경영자,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인 등과 차 또는 식사를 하면서 현수막 사건을 포함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일상생활의 변화에 관한 대화를 했다. 아울러 인터넷 자료, 지역신문, TV, 정부 보고서 등 문헌 자료를 참고했다.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인명과 지명을 익명화하였으며, 핵심 연구 참여자는 위 〈표 1〉과 같다.

2. 정동을 통해 본 재난연구

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가타리로 이어지는 “정동하고 정동되는 능력”⁵⁾으로서의 정동은 기존의 이성과 논리 중심의 인식론을 해체하고, 신체를 통해 직접 느끼고, 표현하는 실체로서의 경험을 주목한다. 특히 근대 이전 개인적이라고 간주했던 몸에 축적된 과거의 흔적들 — 예를 들어 습관, 기억, 감정, 지각, 사유, 욕망 등 — 이 신체 외부, 즉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상황적·관계적·우연적인 삶의 역동성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재평가된다. 특히 인문지리학⁶⁾, 사회심리학⁷⁾, 인류학⁸⁾ 분야에서 새로운 인식론적·실천적 대안을 제공했으며 바야흐로 정동적 전환(affective turn)⁹⁾의 시대를 열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정동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중 재난의 형태나 종류 및 스케일 등이 달라

-
- 5) Deleuze, Gilles &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p. xvii.
 - 6) Brennan, Teresa, *The Transmission of Affect*,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Thrift, Nigel,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London: Routledge, 2007.
 - 7) Wetherell, Margaret, *Affect and Emotion: A New Social Science Understanding*, London: SAGE, 2012. Wetherell, Margaret, “Affect and Discourse – What’s the Problem? From Affect as Excess to Affective/Discursive Practice”, *Subjectivity* 6(4), 2013a. Wetherell, Margaret, “Feeling Rules, Atmospheres and Affective Practice: Some Reflections on the Analysis of Emotional Episodes”, In *Privilege, Agency and Affect*. London: Palgrave Macmillan, London, 2013b.
 - 8) Ahmed, Sara,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4. De Antoni, Andrea & Paul Dumouchel, “The Practices of Feeling with the World: Towards an Anthropology of Affect, the Senses and Materiality”, *Japanese Review of Cultural Anthropology* 18(1), 2017. Navaro-Yashin, Yael, *The Make-Believe Space: Affective Geography in a Postwar Po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2.
 - 9) Clough, Patricia Ticineto & Jean Halley, *The Affective Turn: Theorizing the Social*, Durham: Duke University, 2007.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재난을 정동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재난시대 애도의 정동정치¹⁰⁾, 후쿠시마 재난 이후 시민사회의 정동정치¹¹⁾, 섬진강 범람 이후 공동체의 재구성¹²⁾, 오키나와인의 코로나19 경험의 정동정치¹³⁾, 세월호 참사 이후 감정의 사회화¹⁴⁾, 코로나19 감염 서사를 통해 본 정동정치¹⁵⁾ 등이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재난위기의 상황에서 지역민의 끊임없는 참여를 통해 드러나는 감정·기억·소문의 잉여로서의 정동적 실천이다. 특히 마수미의 정동적 세계에 늘 존재하는 마주침의 “원정치성(proto-political)”의 사례로서 힘과 관계의 강도에 따른 마주침의 고르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다¹⁶⁾. 마수미에 따르면 정동 관계는 하나의 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장이 중첩적으로 마주하고 관계 맺는다는 점에서 미래는 불확실하며, 비결정적이지만, 동시에 서로 간의 주고받는 “간섭 또는 공명”에 의해 결정된다¹⁷⁾. 곧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각이나 의식으로 지각되기 이전의 신체적 마주침에서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미세한 충격과 긴장으로 정동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도래하는 미래 혹은 실천되지 않

10)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1) 신진숙, 「재난의 상상력과 정동의 미적 정치: 후쿠시마 이후, 환동해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찰」, 인문논총 75(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12) 신유정·이채연, 「재난 이후 공동체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2020년 섬진강 범람 이후 구례 지역 사례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54(2), 한국문화인류학회 2021.

13) 조경희·와카바야시 치요, 『포스트 냉전과 팬데믹: 오키나와의 코로나 경험과 정동』, 소명출판, 2021.

14) 김명희,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 1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15) 최슬기, 「초연결사회 감염서사에 드러난 정동정치와 돌봄윤리」, 동아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16) Massumi, Ibid., p. ix.

17) Ibid. p. 156.

는 잠재적 영역으로서 정동정치의 열린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제시된 국내 재난연구들은 인간이 사회적·역사적·물질적 상황의 조건에 놓인 존재라는 점에서 정동이 권력과 자본의 포섭, 회유, 배제 혹은 상품화, 의료화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저항의 씨앗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의 일상 정치에 대한 국내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자는 오키나와인의 코로나19 경험을 정동적 관점에서 분석한 조경희·와카바야시 치요의 연구에 주목한다. 우선 오키나와인들은 팬데믹 상황 지역민의 경험을 전지구적, 아시아적, 국내 정치의 역동적 관계와 탈식민지, 탈냉전, 탈산업, 팬데믹이 공존하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인종, 계급, 계층, 젠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되는 정동적 실천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오키나와의 정치·의료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비)가시화되는 신체적 경험과 그에 대한 분노의 정동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미디어에 포섭되고 은폐되는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밝힘으로써 공동체의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을 조망한다.

하지만 전의식적·전상징적·전언어적·원초적인 신체 경험을 강조한 국내 재난연구는 정동적-담론적 실천에 대한 이론과 체험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이 점에서 필자는 웨더렐이 마수미의 정동 개념을 비판한 정동적-담론적 실천의 “연속성(continuum)”에 주목한다¹⁸⁾. 우선 웨더렐은 마수미가 주창한 담론과 정동의 질적 차이, 즉 정동은 담론과는 전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0.5초 후에 “야성”을 잃어버리고 “길들여진 감정”으로 인지된다는 점을 비판한다¹⁹⁾. 같은 맥락에서 웨더렐은 스리프트²⁰⁾ 역시 0.5초 차이를 “신체가 세상을 인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마수미의 의견에 동조하며, 정동을 특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라

18) Wetherell, 2013a, p. 355.

19) Ibid. p. 354.

20) Thrift, op. cit. p. 34.

고 비판한다²¹⁾. 그러면서 웨더렐은 담론을 배제하거나 파생하는 산물로서 다루기보다는 엮히고설킨 하나의 연속적인 체화된 경험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즉 정동적-담론적 실천은 개개인이 일련의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발현하는 비선형적이고 비재현적인 담론적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몸의 실천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특히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의 일상의 상호작용(inter-action)과 내부작용(intra-action)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정동적-담론적 실천을 “정동적 이동(affective transfer)” 즉, “전염(transmission)”²²⁾이나 둘 사이의 “접합(articulation)” 혹은 “어셈블리지(assembly)” 개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²³⁾.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미 언어화되어 정적상태인 감정, 기억, 소문과는 다른 것으로,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어 미끄러져 잡히지 않지만, 몸과 분리할 수 없는 체화된 경험으로 지역민의 담론의 과잉을 포착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마주침이 무중력의 진공상태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실험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신체적 경험은 개별인간의 내면적 과정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 즉 사람, 사물, 자연환경들과의 끊임없는 마주침을 통해 드러나는 정동의 엮히고설킴이라는 점에서 평평한 혹은 평균적 경험으로 환원할 수 없는 차이를 생산한다. 여기서 정동적-담론적 실천의 과잉은 의미의 ‘넘쳐흐름’이 아니라 일상의 끊임없는 조우의 과정에서 n 차의 차이를 생산하는 정동적 주체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더불어 마수미가 원정치성에서 지적했듯이 마주침의 열린 가능성이란 정동의 이행 혹은 변이능력이 무한하고 삶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에 의해 구속

21) Wetherell, 2013a. p. 355.

22) Brennan, Ibid., p. 48.

23) Wetherell, 2013a. p. 350.

되고,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이 점에서 정동은 발 딛고 서 있는 국가적·지역적·개인적 그리고 사회적·문화적·역사적·정치적·경제적·물질적 상황과 조건에 상응하고 조율하는 정동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실천이라는 인류학적 비판과 공명한다²⁴⁾. 현재 국내 정동연구가 스피노자에서 시작해서 베르그송, 들뢰즈, 가타리, 마수미로 이어지는 이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정동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자 실천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권명아²⁵⁾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정동연구는 심리·생리·인지과학적 접근을 넘어 현실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권력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현실 사회연구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의 정동적 힘의 잠재적 가능성을 드러내고, 포획하려는 권력에 대한 대항적 연구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요약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마을 입구에 설치된 것만 같은 현수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성이나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내적·사회적 차이로 구성되고 생성되는 지역민의 일상 정치의 역동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수막이 걸리게 된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는 물론 육지가 된 섬의 독특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체화되고 누적된 사회적·문화적·도덕적 양식과 태도, 그리고 미디어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시에 외부의 질서·권력·이데올로기에 상대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한정적이지만 자신의 연결망을 통해 세상과 공명하고 진동하면서 끊임없이 차이를 생산하는 사회적 실천의 주체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나아가 개별 지역민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동적 사건을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현하

24) De Antoni & Dumouchel, Ibid., p. 92.

25)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팩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갈무리, 2019.

는 정동의 힘과 주위 세상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정동의 궤적과 지역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마수미의 원정치성, 웨더렐의 정동적-담론적 실천 개념이 사회적 실천이라는 인류학적 감수성과 결합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지역민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상의 정동 정치의 역동성을 밝히는 데 있어 인식론적·실천론적 틀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지역민이 정동을 통해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공통의 것을 창조하고, 추동하고, 조율하는 사회적 실천을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포스트 팬데믹을 마주하는데 비판적 담론과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정동적 사건으로서 지역사회 감염

2020년 8월 H지역 우정마을 C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은 대정마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실행되었다. 개최 예정이었던 모든 지역 축제를 취소했고 군 위탁 공공시설은 모두 잠정폐쇄했다. 그리고 2021년 2월 어느 때처럼 설 명절이 다가왔다. 언론에서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이 잇달았고 마을 방송을 통한 읍사무소의 안내방송도 “극성스럽게” 이루어졌다. 마을 입구에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붙었다.

행정기관의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시장 붓짐의 크기, 표정, 소문 등을 통해 누구 집 자녀들이 설 명절에 조용히 고향을 다녀간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21년 2월 14일 중앙 및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군서읍 우정마을에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확진자 2명은 아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집을 8일 방문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2021년 2월 14일 확진자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군서읍장,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청년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전 주민자치위원장, 관광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꾸려졌다. 이후 비상대책위는 보건소 관계자와 합동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H지역 전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법을 논의하였다. 2월 16일에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군서읍 7명, 이웃하는 청양군과 청남시에서 각각 3명과 1명 등 총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알렸다. 최초 환자가 발생한 A교회에서는 발병 전 12명이 대면 예배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대면 예배에 참석한 12명 중 8명이 확진되었으며 행정조치를 위반한 A교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2월 17일에는 A교회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으며 교인 40여 명 모두를 역학조사를 했으나 전파의 최초 감염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밝혔다. 며칠 사이에 사실 보도에 초점이 있었던 초기 보도와 달리 지역 언론은 최초 감염원에 대한 의문을 눈덩이처럼 확산시키고 있었다. 대정마을을 포함한 군서읍 분위기도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는 붉은색 글씨의 현수막을 걸 것을 결정하였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부모를 찾아온 자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은 2월 14일 대정마을에 2명, 2월 15일 군서읍에 거주하는 7명의 A교회 참석자를 포함한 총 9명의 확진자 외에 더 이상의 확산 없이 진정되었다. 하지만 2022년 2월말 현재 H지역에서만 세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올해의 분위기와 비교해 보면 현수막 사건은 지역민의 당시의 분노의 정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의료사회적 재난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정치적·경제적·환경적으로 얽히고설킨 정동적 실천의 이해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4. 소문, 기억, 감정의 재구성과 정동정치

2021년 설 명절 이후 약 2주 동안 H지역민들이 보여준 참여와 협조 없는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고 지역사회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렇지만 왜 어떤 과정으로 수십 장의 현수막이 걸리게 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된 동기와 힘에 대해서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다. 먼저 필자는 지역의 확인되지 않는 다양한 소문을 거짓뉴스라고 성급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소문을 생성하고 유포하는 힘과 그 힘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소문의 다양한 판본은 단일한 이데올로기나 동일한 권력의 헤게모니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 및 차이를 지닌 사회적 실천의 주체로서 “다중(the multitude)”을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²⁶⁾. 본 장에서는 특히 현수막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판본의 소문에 결합하여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기억과 감정의 영역을 정동적 실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1) 대유행과 사회적 낙인의 정동적 효과

H지역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기 이전 전국적으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5월 이태원 클럽을 매개로 발생한 2차 대유행, 8월 사랑제일교회와 우익인사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8·15행사를 계기로 3차 대유행이 있었다. 이 중 1차와 3차 대유행은 모두 기독교계와 연관된 대유행이어서 시민들은 개신교의 행위에 대하여 우려를 했었다²⁷⁾. 특히 1차 대유행을 초래한 신천지 교회에 의한 대

26) Hardt, Michael & Antonio Negri,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2005, p. xiv.

규모의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은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일반인들의 관심 밖에 있던 신천지 교회의 생활방식과 신앙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촉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경계심은 H지역의 “이단 교회”라고 소문난 C교회와 A교회로 이어졌다.

특히 C교회 목사와 일부 신도들이 참석한 8·15 광화문 행사는 기독교 일부 교파와 보수 정치집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정치색 짙은 행사를 종교행사 구실로 “속였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공분을 샀다. 더구나 이들의 정치적 이해는 지역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민을 화나게 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서울시가 행사 개최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통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했다. 지역민들 역시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재난 위기를 극복해야할 상황에 국론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였다.

한편 정미연이 청정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부터 단속”해야 하고 “시기가 좋아지면 모이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듯이 H지역민은 여전히 ‘섬’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초기 백신에 대한 언론들의 부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시간에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식들 이유를 대며 회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공의 문제로 합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편리와 이익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안전 또한 돌봐야 한다는 공동체의 도덕적 계율을 위반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

27) 고재길, 「코로나19 시대와 교회공동체의 윤리」, 『신학과 사회』 35(1),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21. 정재영,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변화와 공공성」, 『신학과 실천』 73, 한국실천신학회, 2021.

‘이방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희 또한 어느 정도 익명이 보장되는 도시와는 다르게 한 사람 건너면 누구인지 잘 아는 “형님, 사돈, 숙모, 제수 씨, 당숙”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삼가는 것이 예의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본적인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무엇보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처럼 H지역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공공자원으로서 지역민 모두가 후세에 고스란히 물려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당연히 개인 혹은 일부 집단의 일탈 행위는 지역사회에서 명망과 인심을 동시에 잃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이단행위로 간주되었다.

2) 지역사회 미디어와 소문의 정동

대부분의 H지역 노인들은 해가 있을 때 일하고, 해가 지면 일찍 잠을 청하는 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새로운 소식은 TV 뉴스나 신문 이외에 마을과 읍내 시장을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전해 듣는다. 이런 면에서 2021년 2월경 지역민들 사이 소통되었던 소문을 통해 형성된 일종의 ‘공공의 지식’은 소위 말하는 공적인 미디어로서의 지방 신문이나 뉴스가 다루지 않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는 지역의 유지들이 참석한 여러 대책 회의에서 현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반하는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어떤 형태로든 지방행정 권력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설 명절에 부모를 뵈러 온 자녀가 최초 전파자이며, A교회에 참석한 부모에 의해 집단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나돌았다. 즉 그 자녀가 A교회 신자라는 것이며, 부모는 자식의 성화에 못 이겨 군서읍에 소재한 A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삼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

먼저 “부모가 무슨 죄”라며 A교회로 이끈 자식이 “못난 놈”이라는 세평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멀리서 부모를 찾아온 “불효자가 무슨 죄”라며 마을 주민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A교회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이는 우정마을 C교회의 지역사회 감염 사건에서 배운 듯하다. 다시 말하면, 2020년 8월, 전광훈 목사 등과 극우 정치인들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같은 교파의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대정 마을 사람들은 A교회에도 똑같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우정마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지만 당장 큰 외형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우정마을 청년들이 C교회로 몰려가 마을로부터 퇴거해 달라고 “데모”를 했다는 소문이 군서읍내 시장에 널리 퍼졌다. 해당 목사는 치료 때문에 육지의 격리된 다른 장소로 보내졌으며 이후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발병한 목사의 감염은 목사 한 사람의 감염에 그쳤을 뿐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감염은 없었다. 이후 목사는 10여 개월 동안 C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21년 2월 A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사건이 터진 것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오경춘의 말처럼 “또 그 교회”하면서 A교회를 낙인찍은 것이다.

하지만 우정마을의 사건이 목사 본인의 감염에 그쳤듯이 A교회 사건도 정확히 말하면 A교회 신자들에 한정된 지역사회 감염이었다. 또한 ‘불효자’가 근무하는 타지역에서 더 이상의 의심할 만한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효자’가 마을의 최초 지역사회 감염원이라기보다는 A교회에 참석한 타지역 사람들에 의해 최초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으며, ‘불효자’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했다. 더군다나 보건소 관계자가 조심스레 말하듯이 설 명절 이전에 이상 증상을 보인 ‘불효자’의 빠른 행동으로 ‘불효자’가 검사받았던 타지역 관계기관으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H지역은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방역의 최전

선에서 일하는 신수현의 처지에서 보면 오히려 그 ‘불효자’가 누구보다도 “고마운 사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서읍 사람들은 다시금 우정 청년들의 대응을 기억한 것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현수막까지 걸 정도로 사건이 심각하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신정남은 이와 관련하여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현수막 사건과 관련하여 군수를 비롯한 지방행정당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마치 비밀이야기를 하듯 소리죽여 말했다. 당시 여당의 공천권을 얻고 출마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옥중 유세를 하더라도 군수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내친 이유로 개인의 건강 문제라고 한 점은 정치인의 입바른 “거짓말”이라 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들리는 소문 중에는 선거운동의 재정을 담당했던 후보의 동생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후보자는 검찰 출두통지서를 두고 검찰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정남은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력을 보건대 건강이상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며, 세월호 참사와의 관련성을 지목했다. H지역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며, 세월호 실제 주인은 청해진 해운 대표가 아니라 전 세모그룹 회장이자 구원파 교주로 알려진 유병언이며, 현 군수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세월호 ‘진짜 주인’에 대한 조사가 옥죄어 오자 친인척으로서 선뜻 정치 일선에 나서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보다는 침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내는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현 군수와 유병언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H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염전의 실제 주인이 유병언 일가이며,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일가친척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세월호 사건 당시 검찰에서 정경유착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소문

이 나돌았고, 그것에 부담을 느낀 당시 후보가 정치적인 사퇴로서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았다고 한다. 여전히 유병언이 생존한다고 믿는 이청내는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음으로 양으로” 도운 것도 유병언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마디로 그는 “검은돈과 인맥”으로 얹히고설킨 관계라서 2014년 선거에서 본인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전에 그만두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그리고 4년여가 지나 지역민의 일상 생활에서 세월호 참사가 잊힐 무렵인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재선된 것이다. 한편 서고운은 유병언 교회 측과 군수 간의 검은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비슷한 내용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확인할 수도 없는 “뜬소문”이며 다른 후보의 “정치적 모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렇듯 마을 주민 한둘만 모이면 비밀이야기를 하듯 현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이야기는 술안줏거리나 대화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판본의 이야기들이 얹히고설키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었으며, 그 전파속도는 대정마을의 지역사회 감염 사건 이후 더욱 빨라졌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분절적이며, 단편적이며, 미확인 소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힘, 즉 소문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고 흩어지는 체화적 경험, 즉 정동을 주목한다.

3) 체화된 기억과 누적된 감정의 과잉

대정마을 주민 중 현수막의 글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마을 곳곳을 수놓은 현수막에 그토록 정치적인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그 힘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추동되었으며,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필자는

당시 소문과 함께 들끓었던 분노에 내재된 체화된 기억과 세월과 함께 쌓인 타자에 대한 감정들을 추인하는 정동에 주목한다.

우선 C교회와 A교회에 대한 감정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듯하지만, H지역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도의 차이가 있으나 마을 공동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해묵은 분노의 감정이 드러났다. 첫째로 1년이 지나도록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일상의 불편함이다. 오경춘은 농업경영인과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을 통해 농약을 할 때는 건강을 위해 꼭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고 했다. 농작업을 하는데 매우 거추장스럽고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C교회와 A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은 마스크의 불편함을 더 오랫동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지역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교회 측에 표현한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비슷한 지역사회 감염을 경험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현수막에 빨간 글씨로 정치적 표현을 한 이유를 설명하기엔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 지점에서 지역민들이 불평·불만거리가 되겠나 싶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체화된 기억과 분노의 정동에 주목한다. 즉 지역공동체에 소속감이 없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한 ‘이방인’의 지역 공공자원에 대한 안하무인의 태도 및 행동에서 어떤 응어리진 감정과 그것을 넘어서 분노의 정동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대정마을 주민들은 C교회의 젊은 교인들이 2020년 여름휴가 기간 중 마을 선착장 부근에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중 일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촉발했던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목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친정부 성향인 지역 주민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H지역민들을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으로 간주하고 계몽하려는 그들의 태도였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 한다.”라며 내용도 모르고 선뜻 서명은

동에 참여한 몇몇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우정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명운동이 당일 하루에 그친 덕분에 눈에 보일 정도의 큰 갈등은 없었다. 다만 우정마을 사람들은 그 후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방송을 통해 C교회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응어리진 감정들이 건잡을 수 없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C교회와 A교회 모두 현지 성도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20여 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이다. 하지만 실제 지역 교인의 수에 비해 최근에 신축한 두 교회의 크기는 마을 전체 주민을 수용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 그리고 실제 교회 운영은 지역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배와 관광버스 등을 통해 찾아온 타지역 신자들의 예배 활동과 수련회가 대부분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주말이면 우정마을 들판 한가운데 세워진 C교회와 군서읍내의 산 중턱에 세워진 A교회에서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가 더는 낯설지 않은 지역사회 풍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 일부 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듯이 “사이비”라는 점 때문이 아니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식견이 다른 것은 언짢지만, “민주주의”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렇지만 마을 주민을 화나게 한 것은 이들 “외지인”이 들어오고 떠난 자리에는 항상 온갖 쓰레기가 널려있었다는 점이다. 여전히 공동체라는 의식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으로 간주되는 자연을 더럽히는 ‘외지인’의 행동은 지역민에게 곱지 않은 시선과 분노를 일으켰다. 그리고 A교회 다수의 신자가 확진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꾹꾹 눌러왔던 분노의 정동이 지금-여기에서 체화된 기억을 통해 발현된 것이며, 미래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베르그송은 기억은 두뇌 어느 한 곳에 붙박인 정지된 정신으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각과 마주하면서 과거를 현재로 연장하고, 미래로 투사하는 것이며, 이

를 “지속”이라 일컬었다²⁸⁾. 마찬가지로 A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기억과 감정들이 코로나19 지역감염 사건과 마주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확장되었다. 나아가 마주하는 정동의 관계에 따라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속도와 강도로 현실의 경험을 새롭게 창조했다고 볼 수 있다.

‘외지인’에 대한 반응은 상인도 비슷했다. 지수미는 이들 외지인은 버스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섬”에 들어와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갈 뿐 “십 원 한 장”도 H지역에서는 쓰지 않는 “예의 없고 공중도덕도 지킬 줄 모르고, 상도도 없는 자”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흥미로운 점은 소문을 통한 타자화의 대상이 ‘지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집단’에 한정되어 발현하는 것으로 공동체 윤리의 이중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낙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A교회에 다니는 지역민도 아니고 바이러스를 전파했다고 소문이 난 A교회 교인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 대상은 아직 마을 공동체에 잘 섞이지 않고 섞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과 이방인 집단이었다. 반남서의 사례처럼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후에도 한참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나, 최초 전파자로 오해받은 아들은 공동체 윤리와 도덕성이 부족한 인물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로 염려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숙현의 말처럼 “만약에 또 이런 것이 생기면 이웃 간에 안 좋고 내 자녀뿐 아니라 형제간에도 너무 힘들다”며 타산지석의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

4) 마을의 정동적 분위기

왜 유독 교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컸을까 따지고 보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12명이 참여한 A교회의 종교행사에 대한 지

28) Bergson, Henri, *Matter and Memory*, New York: The MacMillan co., 2000, p.25.

역 언론과 주민들의 반발은 과도해 보인다. 이 점에서 주민들의 C교회와 A교회와 관련된 기억과 함께 체화된 부정적인 감정이 지역사회 미디어 기능을 하는 입소문과 결합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는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착하려면 미끄러져 사라져 버리고 언어로 규정할 수 없지만,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관계의 강도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듯하지만, 넓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마스크 쓰기를 볼 수 있다. 그레그 톰슨(Greg Thompson)은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의 근간이 되었던 마스크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실천된 이유를 “집단주의(collectivism)”가 아니라 한국의 “눈치”, “분위기”, “우리”라고 불리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했다²⁹⁾. 즉 톰슨은 한국문화에서 잘 발달된 일종의 “존재의 상호성(mutuality of being)”으로 타자를 의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꼽았으며, 이를 사회에 대한 자기 수용성이라고 규정했다³⁰⁾. 그도 그럴 듯이 두 번의 지역사회 감염 이후 대정마을 주민들은 K방역 수칙을 한동안 잘 지켰으며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듯했다. 하지만 3월이 지나 4월에 이르러 마을 내에서는 나이 든 남성을 중심으로 하나둘 마스크를 벗고 다니더니 5월경에는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마을 주민들 모두 항상 마스크를 휴대하고 다녔으며, 마을에서 낯선 ‘이방인’을 마주했을 때는 마스크를 황급히 쓴다는 점이다. 또한 마을을 벗어나 운전을 하거나 읍내 시장 등을 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호성은 스타쉬가 언급했듯이³¹⁾ 이타적인 타자성에 기반을 두기도 하지만 상호간의

29) Greg Thompson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줌 초청강연 “The Role of Korean Culture in Limiting the Spread of COVID-19”(강연일: 2021.3.11.), 정종민·송지영, 앞의 책, p. 209 재인용.

30) Stasch, Rupert, *Society of Others: Kinship and Mourning in a West Papuan Plac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p. 132.

31) Ibid., p. 133.

“이상함과 낯섦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때론 지지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톰슨이 언급한 상호성은 우호적인 친선관계뿐만 아니라 낯섦에서 오는 반목과 갈등, 심지어는 착취도 포함하는 매우 역동적인 일상의 실천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오경춘이 말하듯, 일상생활에서 표정을 숨기고 대화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고 싶거나 상대방을 잠정적인 감염자로 간주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어색하다고 했다. 그 의미는 한국인의 눈치, 분위기 그리고 우리라고 표상되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낯섦과 어색함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집단적으로 쓰지 않을 역기능성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잉골드(Ingold)는 이런 분위기를 사물이나 사람 사이에 자유롭게 부유하는 아지랑이 같은 기상학적인 현상과는 다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손에 쥘 수 없으면서, 주관적인 정서라고도 할 수 없으나 “물성(the qualities of things)”이 내재하기 때문에 “감지하는 존재(sensing beings)”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³²⁾.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물, 자연, 소문 등 세상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것은 지각적 참여(perceptual engagement)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멀리 떨어져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몸, 좀 더 구체적으로 촉각(haptic perception)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감각 정보와 기억된 정보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보는 자와 보이는 자 혹은 청자와 화자 간의 거리적 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동하고 정동된다고 할 수 있다. 앤더슨(Anderson)이 “정동적 분위기(affective atmospheres)”라고 규정했듯이³³⁾, 분위기는 통제할 수 없

32) Ingold, Tim, “The Atmosphere”, *Chiasmi International* 14, 2012, p. 80.

33) Anderson, Ben, “Affective Atmospher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2009, p. 77.

고 예측할 수도 없는 “도래하는 힘(the power of the emergent)”이며, 몸들 사이 “물질적, 생물학적, 사회적, 기술적 관계들의 어셈블리지”이다³⁴⁾. 마수미의 언어를 적용하면 “미분적 정동적 조율(differential affective attunement)”의 과정에서 관계의 강도에 따라 갈등, 대립, 외면 등의 정동 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다³⁵⁾.

C교회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던 시기에 있었던 H지역 교회연합회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지역민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이 개신교 전체로 퍼지거나 특정 교회에 지목되는 것을 우려한 눈치가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021년 6월 A교회의 “월급쟁이” 이면서 “객지사람”으로 간주되는 교인 박광식과의 전화 통화 내용도 마찬가지다. 지난 4개 여 월 동안 받은 사회적 지탄과 낙인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그는 오히려 “추운 날씨에 읍사무소와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고맙다.”고 했으며, 그런 사태를 초래해서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회 폐쇄라는 행정조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교회를 열지 않았으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주일날 예배를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친다고 했으며, 점심식사는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수막 사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러한 역동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그 회의에 참석한 어느 사람도 누가 제일 먼저 안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언급할 필요도 없다며 쉬쉬했으며, 그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며 얼버무렸다. 즉, 완성된 그림처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제시할 수 없지만, C교회와 A교회와 관련된 소문과 기억 그리고 그것들과 얽힌 감정들이 여러 번의 대책회의와 일상 대화에서 드러났다. 더불어 군서읍민 대부분은 세월호 참사를 깔끔하

34) Wetherell, 2013b, op. cit., p. 222.

35) Massumi, op. cit., p. x.

게 해결하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떠났던 당시 H지역 책임자인 현 군수를 생생히 기억했다. 그리고 2020년 8월과 2021년 2월 두 번의 지역사회 감염 원인으로 유병언의 구원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추측되는 C교회와 A교회가 지목되면서 지역민들은 2014년을 떠올렸다. 2014년 당시 군수의 행동에 실망했던 주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불평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소문들이 바람에 들불 번지듯 삼시간에 퍼져갔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적 주도권 싸움과 관련된 분위기이다. H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에 비해 30여 개소의 종교시설이 있으며, 거의 모든 마을에 1개 이상의 교회 등을 포함하는 종교시설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군서읍에는 교회 5개, 절 1개, 성당 1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하민은 모든 종교시설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볼 보듯 뻔하며, 교인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밥그릇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감염 사건은 소위 이단 교회라고 알려진 두 교회를 위축시키기에 좋은 기회였다는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이방인’ 교회에 대한 지역공동체 혐오의 감정을 지속해서 생산하고 타자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정동적-담론적 실천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2021년 2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정적으로 정착화단계에 들어선 시기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즉,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정마을 청년들이 했던 것처럼 대정마을 주민을 조직하여 정치적인 집회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여러 차선택이 논의됐을 것이라 짐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2월 중순 코로나19 비상대책위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5. 결론

본 논문은 정동 개념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H지역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코로나19와 마주하고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정동이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을 넘어 정동적 관계의 장에 나타나는 정치성을 주창한 마수미를 참조했다. 또한 담론적 실천이 정동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동을 추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동적-담론적 실천개념을 제안한 웨더렐을 인용했다. 나아가 마수미의 정동의 원정치성과 웨더렐의 정동적-담론적 실천개념이 간과한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인류학적 감수성을 결합하여 현수막 사건을 하나의 정동적 사건으로서 톺아봤다.

본문에 기술된 정동정치는 수학 공식을 풀듯이 깔끔하지도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서 완결적이지도 않다. 다만 서로 다른 정동적 장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충돌하고 간섭하면서 공명하기도 하며, 왜곡되는 과정을 추적·기술·분석했다는 점에서 “어셈블리적 민족지”(an assemblic ethnography)라고 볼 수 있다³⁶⁾. 즉 하나의 전체로서 현수막 사건의 일부분을 과장하거나 전체가 아닌 개별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파편화된 부분적인 진실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동정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전체 중 일부가 아니라 부분 그 자체로서 지역민들이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끊임없이 마주하면서 흩어지고, 모이고, 단절하는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나아가 그러한 관계의 강도, 지속, 이행, 단절을 통해 지역사회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틀과 접근법을 제공하고자 했다.

정리하면 C교회와 A교회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소식은 그 교회가 ‘이단’

36) Zigon, Jarrett, “What is a Situation?: An Assemblic Ethnography of the Drug War”, *Cultural Anthropology* 30(3), 2015, p. 506.

교회일 것이라는 미확인된 소문과 함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선주로 의심되는 유병언 교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입소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퍼졌다. 그리고 그 소문이 C교회와 A교회 교인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억 및 감정과 맞물리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더욱이 2020년 8월에는 C교회 교인 일부가 친정부적인 지역의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일부 우익단체와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정치집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2021년 2월 A교회에서도 비슷한 지역사회 감염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소식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에 오점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일상의 불편함과 겹치면서 지역민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2014년 H지역 자치단체장이 의심적은 이유로 세월호 사건 해결에 미적거렸고 연이은 전국공동지방선거에서 사퇴한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한 기억이 겹치면서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현수막 사건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2년 설 명절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자리 숫자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위기 상황에도 2021년과 같은 분노의 정동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나”로 인해 가족, 이웃,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공동체 윤리에 포섭된 정동의 윤리적 실천이 강화되었다.

정동정치 관점에서 보면 현수막 사건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비상대책회의 참석자의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나 비합리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벌어진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주민의 말처럼 그날의 분위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수막을 걸 것을 결정한 그 날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전파되고, 확장된 파편화된 소문, 기억, 감정들이 마침내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마주하면서 생성된 매우 상황적이며, 관계적이며, 역동적인 정동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한 역사적 순간의 기억, 감정, 기분 등이 투영된 정리되지 않고 흩어져 넘쳐흐르는 몸

의 경험으로서의 정동이 담론과 마주하면서 생성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정동적 세계에서 드러나는 정동을 통해 서로 연결하고 확산하거나 그 관계를 단절하거나 유예하는 정동적 다중의 힘과 그 힘의 질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공동체에 위기를 촉발한 ‘외지인’에 대한 분노의 정동이 공통의 관심으로 발현되는 과정은 일종의 커먼즈적 실천으로 다양한 위치와 배경을 지닌 지역민들의 ‘정동적 커먼너’(affective commonor) 되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³⁷⁾. 이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역사적 상황 및 조건과 상응하면서 얽히고설킨 지역민의 경험을 연구함에 있어 기존의 구조나 체제 혹은 ‘위로부터의 관점’을 넘어 정동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나아가 ‘섬’이라는 공동체적 감정이 여전히 작동하는 지역 공간에서 지역민이 바이러스와 마주하면서 생성하는 재현적·비재현적 경험을 정동정치의 과정으로 드러냄으로써 지역의 공간적 정동정치 연구의 확장에 기여했다. 기억할 것은 2022년 설 명절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수막 사건은 하나의 정동적 사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으로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이다. 장기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지역공동체의 소문, 기억, 감정, 분위기와 마주하면서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37) 정남영, 「커먼즈 패러다임과 로컬리티의 문제」, 『로컬리티 인문학』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 참고문헌 |

- 고재길, 「코로나19 시대와 교회공동체의 윤리」, 『신학과 사회』 35(1), 21세기기독교 사회문화아카데미, 2021.
-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팩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갈무리, 2019.
- 김명희,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 1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 노진철, 「공동체 중심 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재난 시티즌십」, 김진희 외 편저, 『포항지진 그 후: 재난 거버넌스와 재난 시티즌십』, 파주: 나남, 2020.
-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신유정·이채연, 「재난 이후 공동체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2020년 섬진강 범람 이후 구례지역 사례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54(2), 한국문화인류학회, 2021.
- 신진숙, 「재난의 상상력과 정동의 미적 정치: 후쿠시마 이후, 환동해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찰」, 『인문논총』 75(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 이영희,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경제와사회』104, 비판사회학회, 2014.
- 정남영, 「커먼즈 패러다임과 로컬리티의 문제」, 『로컬리티 인문학』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 정재영,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변화와 공공성」, 『신학과 실천』73, 한국실천신학회, 2021.
- 정종민·송지영, 「팬데믹 상황에서의 관계적 돌봄: 파킨슨증 아버지의 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1.
- 조경희·와카바야시 치요, 『포스트 냉전과 팬데믹: 오키나와의 코로나 경험과 정동』, 소명출판, 2021.
- 최슬기, 「초연결사회 감염서사에 드러난 정동정치와 돌봄윤리」, 동아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채종현·최호진·이재호, 「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8.
- 최준규,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21.
- Ahmed, Sara,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4.
- Anderson, Ben, "Affective Atmospher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2009.

- Bergson, Henri, *Matter and Memory*, New York: The MacMillan co., 2000.
- Brennan, Teresa, *The Transmission of Affect*,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 Brown, Steven D., Ava Kanyeredzi, Laura McGrath, Paula Reavey & Ian Tucker, "Affect Theory and the Concept of Atmosphere", *Distinktion: Journal of Social Theory* 20(1), 2019.
- Clough, Patricia Ticineto & Jean Halley, *The Affective Turn: Theorizing the Social*, Durham: Duke University, 2007.
- De Antoni, Andrea & Paul Dumouchel, "The Practices of Feeling with the World: Towards an Anthropology of Affect, the Senses and Materiality", *Japanese Review of Cultural Anthropology* 18(1), 2017.
- Deleuze, Gilles &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 Hardt, Michael & Antonio Negri,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2005.
- Ingold, Tim, "The Atmosphere", *Chiasmi International* 14, 2012.
- Massumi, Brian, *Politics of Affect*, Cambridge: Polity, 2015.
- Navaro-Yashin, Yael, *The Make-Believe Space: Affective Geography in a Postwar Po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2.
- Spinoza, Benedict, *Ethics*, Translated by William Hale White, Los Angeles: Moonrise Press, 2017.
- Stasch, Rupert, *Society of Others: Kinship and Mourning in a West Papuan Plac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 Thrift, Nigel,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London: Routledge, 2007.
- Wetherell, Margaret, *Affect and Emotion: A New Social Science Understanding*, London: SAGE, 2012.
- _____, "Affect and Discourse - What's the Problem? From Affect as Excess to Affective/Discursive Practice", *Subjectivity* 6(4), 2013a.
- _____, "Feeling Rules, Atmospheres and Affective Practice: Some Reflections on the Analysis of Emotional Episodes", In *Privilege, Agency and Affect*. London: Palgrave Macmillan, London, 2013b.
- Zigon, Jarrett, "What is a Situation?: An Assemblage Ethnography of the Drug War", *Cultural Anthropology* 30(3), 2015.

| Abstract |

An Ethnographic study of Local Infection with COVID-19 and the Politics of Affect in the H Local Region in Korea

Jeong, Jong-min · Myoung, Dongho

This paper examines how rural people understand, tolerate and respond to the COVID-19 socio-medical disaster as an affective event. Through an analysis of affect theory and the concept of affective-discursive practice, it explores how locals express affect that cannot be observed or defined in the language in daily encounters with the local infection of COVID-19 without being easily grasped by the state, media, or capital. By focusing on the case of H local region, it demonstrates how the locals cross over rumors, memories, and emotions entangled with hatred and social atmosphere towards a person or group that has been suspected of spreading the virus and therefore breaking the ethical codes of the community. Through embodied practices of caring for the moral community as a shared common, it highlights how these local people become affective commoners. Moreover, it provides insights on the situational and relational dimensions of everyday politics as affective social, historical, material entanglements in local communities, suggesting a new study of affective politics in regional politics.

Key Words: COVID-19, Politics of affect, Affective-discursive practice, Rumor, Memory

· 논문투고일: 2022년 3월 7일 · 심사완료일: 2022년 4월 15일 · 게재결정일: 2022년 4월 19일
--